

총여학생회실 LAN선 연결을 요청합니다.

발신 :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

수신 : 여학생처 및 학교본부

날짜 : 1998년 9월 8일

총여학생회의 위상과 활동

총여학생회는 현재 총학생회의 특별기구이자 직선체입니다. 예전에는 총학생회의 산하기구, 내지는 '동아리' 수준으로 총여학생회의 위상 적립이 되었지만, 현재 총여학생회는 사실상 그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봐서, 총학생회 산하 기구가 아닌, 중북 기구라는 점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지배적인 여론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 활동의 일차적 대상은 여학생이지만, 활동의 범위는 전학교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의 문제가 여성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여학생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면서 여학생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그만큼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요구들에 응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또한 아직까지 많은 한계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희는 정보통신의 효과적인 이용을 사고하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 통신을 통해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우들의 대다수가 통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저희도 학우들과 모두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통신 공간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즉, 통신 공간을 이용해 총여학생회의 사업과 의견들을 모든 학우들에게 알려내고 학우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필요한 여성학 관련 자료들을 학우들이 총여학생회에서 주로 찾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학우들의 요구에 저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현재 서울 경기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총여학생회 내지는 여성위원회들이 함께하는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대학 내에서 성폭력의 문제를 고민하는 서울경기지역 여성연대회의가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여름에는 전국 20개 대학에서 100명 가량 모여 '98 여성연대한판'(올해 여름 8월21일부터 23일까지 동국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이라는 대규모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를 위한 거의 모든 준비가 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전국대학 총여학생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총여학생회의 위치와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총여학생회는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는 우리 나라 최초 남녀공학의 총여학생회로, 소위 말하는 '여성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단체들은 물론, 언론과 방송에서도 여대생들의 문제의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저희에게 자료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여학생회는 하나의 외선으로 전화와 모뎀 양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관련된 업무가 늘어나고 통신을 사용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화 사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총여학생회의 외선 전화를 학생회관 3층에 있는 동아리들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가끔은 전화선을 가지고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LAN선 연결을 통해 전화와 통신 사용을 분리시키면 보다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여학생회가 여학생들 뿐만 아니라 2만 연세인들과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보다 발전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총여학생회실 LAN선 설치를 수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